

Travel+Blogger

트래블로거, 전북을 탐하다.

전북교육문화회관



EM156551

문화유람

트래블로거, 전북을 탐하다.

© 전북을 탐한 100인의 트래블로거들, 2011

초판 1쇄 2011년 2월 20일

지은이 | 전북을 탐한 100인의 트래블로거들

펴낸이 | 이태준

기획 | 전라북도 홍보기획과

진행 | (주)굿앤파트너즈, 선샤인뉴스

편집, 디자인 | 홍디자인(장잔디 063.241.8082)

일러스트 | 김민혜

마케팅 | 박상철, 이태준

관리 | 김수연

펴낸곳 | 문화유람

출판등록 | 제17-332호 2002년 10월 18일

주소 | (121-839)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2-4 삼양빌딩 2층

전화 | 02-486-0385

팩스 | 02-474-1413

홈페이지 | www.inmul.co.kr | cntbooks@gmail.com

ISBN 978-89-91945-31-9 13980

값 14,000원

북카라반은 도서출판 문화유람의 브랜드입니다.

이 저작물의 내용을 쓰거나 할 때는 저작자와 문화유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파손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PART 02

즐거찾기 : 프레임을 바꾸면 추억도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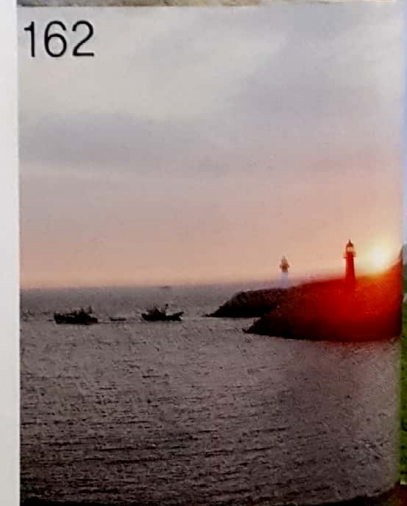


전주를 바라보는 10가지 시선

전주한옥마을에 이 무슨 일이? _ 유은영	102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전주 맛집투어를 떠나다 _ 김민지	108
전주에서 1박2일, 한옥마을 쏘다니기 _ 김복녀	110
왕의 초상을 모신 전주의 중심, 경기전 _ 루비	114
'성균관스캔들', 전주향교를 탐하다 _ 박병수	116
한밤에 즐긴 전주문화탐방기 _ 이한설	118
남부시장 하늘정원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손짓예술, '할머니공방' _ 염관식	120
전주 동문사거리에는 예술이 숨어있다 _ 김은경	122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전주 경기전을 둘러보다 _ 권보경	123
두 바퀴로 누빈 전주한옥마을 이야기 _ 김재훈	124

부안을 만나는 10가지 방법

'왕궁의 재현' 을 만나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탐방기 _ 유나미	128
대웅보전의 절묘하고 아름다운 꽃잎문살을 가진 부안 내소사 _ 조영범	132
'바다의 만리장성' 새만금, 그 광활한 방조제 위에 서다 _ 오정자	133
멋진 사찰과 아름다운 바다, 자연이 함께하는 여행지, 부안 여행의 모든 것 _ 장은숙	134
'바다의 눈물' 천일염의 생산지, 부안 곰소항 곰소 염전 _ 정주영	138
볼수록 신비로운 '소금의 탄생', 전북 부안 곰소 염전 _ 하향진	139
다시 가고픈 그곳, 고창과 부안 _ 노장호	140
산과 바다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휴양지,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 _ 장이운	142
전북 부안, 천혜의 절경을 걷다 _ 황희숙	144
부안 여행, 채석강과 적벽강 그리고 술섬, 흑백의 아름다움에 취하다 _ 임운석	146
당일로 떠나는 부안 여행 : 내소사에서 변산반도까지 _ 김정은	148
나 홀로 떠나 즐긴 부안 내소사 여행 _ 송옥희	150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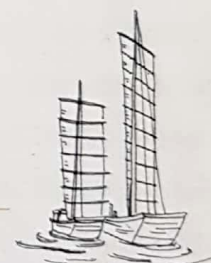


188



군산이 들려주는 9가지 이야기

튼튼한 두 다리로 느껴본 군산, 걸어서 군산 여행 _ 이창용	154
간이역에서 낚선 시간 속으로 _ 신명식	156
두 바퀴로 전북을 달린다. 전주에서 군산, 번산반도까지 _ 하광성	162
하루 만에 즐기기에 너무나 짧은 근대 군산으로의 시간여행 _ 유승범	164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군산내항의 적산가옥들 _ 강주연	166
'지나가는 강아지도 입에 생선을 물고 다니던' 옛 추억을 느끼다... 군산 껍보선창 _ 이영주	167
군산을 걸으면 과거가 흐른다 _ 장지선	168
비 내리는 항구도시 군산을 거닐다 _ 김은주	170
갈 때마다 따뜻한 느낌이 있는 곳, 군산의 3대 문화유산을 소개합니다 _ 박연선	172
바다를 가르는 33.9km '바다 위의 만리장성' 새만금 방조제를 달린다 _ 엄인숙	174



진안을 즐기는 7가지 방법

진안 마이산에서 아침 산행의 짜릿함을 느끼다 _ 김미라	178
상춘객 시선 홀리는 진안 마이산 벚꽃여행 _ 김종천	179
잊혀가는 육지의 섬, 진안 죽도 _ 정민용	180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진장' 행복해지는 그곳, 모래재 _ 홍은미	185
천반산은 금강에 발을 담그고 혁명가는 죽도에 한을 묻다 : 정여립역사기행 _ 최만호	186
기묘한 경관을 볼 수 있는 '마이산' 등산 _ 이창룡	188
이갑룡 처사의 지극정성이 빛은 기적의 탑, 마이산탑사 _ 정기상	189
마이산탑사, 그 경건한 '기적' 앞에 서다 _ 황혜성	190
진안 구봉산, 9개의 봉우리가 시원한 전망을 보여주는 산 _ 장수환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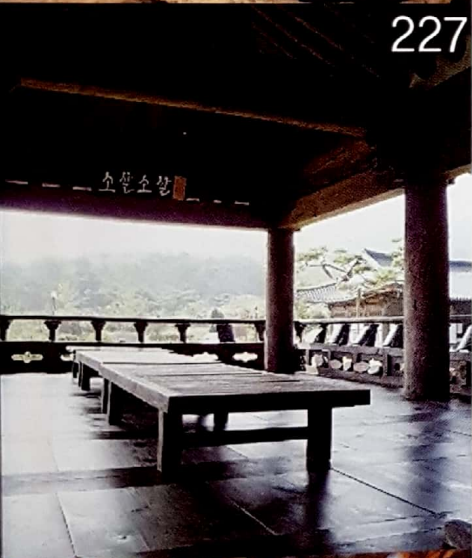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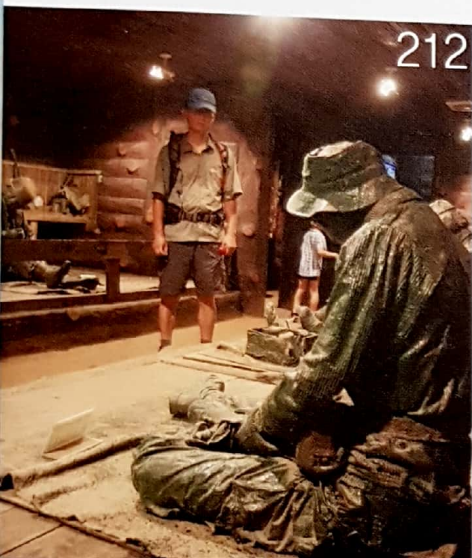
PART 03

둘러보기 : 그리움이 깊으면 이야기가 된다



봄, 익산에서 필름의 행적을 쫓다 _ 김성철	196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방, 전주 삼양다방 _ 권동현	200
신선과 선녀들이 노니는 곳, 국민관광명승지 사선대 _ 조천준	202
완산동, 이 길의 끝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 _ 김승렬	204
하얀 연꽃이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곳, 김제 청운사 하소백련 _ 이영화	206
해발 900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청정고원 골프장, 무주CC _ 이흥곤	207
임실 필봉리의 정월대보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_ 변영래	208
진안 운장산 자연휴양림 캠핑기 _ 이미선	210
아름다운 풍경과 시리게 아픈 역사가 깃든 순창 회문산휴양림 _ 설주호	212
가을, 그곳엔 소들의 결투가 있었다 _ 김성배	214
제철 딸기를 가장 맛있고 실속 있게 만나는 방법, 원주 삼례딸기축제 _ 김은수	216
오래된 포구에서 '여행' 을 느끼다 _ 임덕기	218
소중한 이들과 함께 떠난 5월의 무주 여행 _ 박미화	220
승마에서 춘향까지, 전북으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가족여행 _ 김건웅	222
역사에서 체험까지,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부안-정읍여행 _ 문진화	224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이틀간의 휴식, 고창 선운사 템플스테이 _ 김인석	226
남원 혼불문학관, 그곳에서 최명희 선생의 얼을 쫓다 _ 이다영	227





안개 속에서 마주한 설천봉, 향적봉의 숨막히는 여름 풍경 _ 전용운	228
신기가 떠난 30일간의 도보여행, 순창에서 임실까지 _ 김신기	230
무주 양수발전소에서 적상산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는 무주 여행 _ 안상규	231
정읍 내장산, 신의 손길이 펼쳐놓은 화려한 색채의 향연 _ 이승철	232
부안 변산반도 자전거 일주 _ 조영빈	234
1박 2일로 떠나는 전라북도 가족여행 _ 강석준	235



전주에서 밤 2일,

한옥마을 쏘다니기



김복남
<http://blog.naver.com/kimnrc>

여행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딱 일주일 전, 태어나 처음 간 전주라는 도시, 나지막 하니 마음에 쏙 들었다. 뭐랄까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보자기 속에 들어간 느낌이랄까. 혼자 다니기 좋은 공간감과 한나절 쏘다니기 적당한 거리감이 익숙한 기분이랄까. 내가 사는 도시에서 2시간 30분이라는 짧은 거리에 있는 이 도시를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에 가려고 했었지만, 첫 전 주여행은 '한옥마을' 이 되었다.

한옥마을 내 유서 깊은 고택체험이 가능한 '학인당' 을 바로 찾아갈까.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갈까 고민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동행이 생겨버렸다. 내가 세웠던 '비 오는 날 고택 처마에 앉아 비 구경하며 늘어지기' 계획은 무산되었고, 결국 여행객이 되어 낯선 도시 전주를 쏘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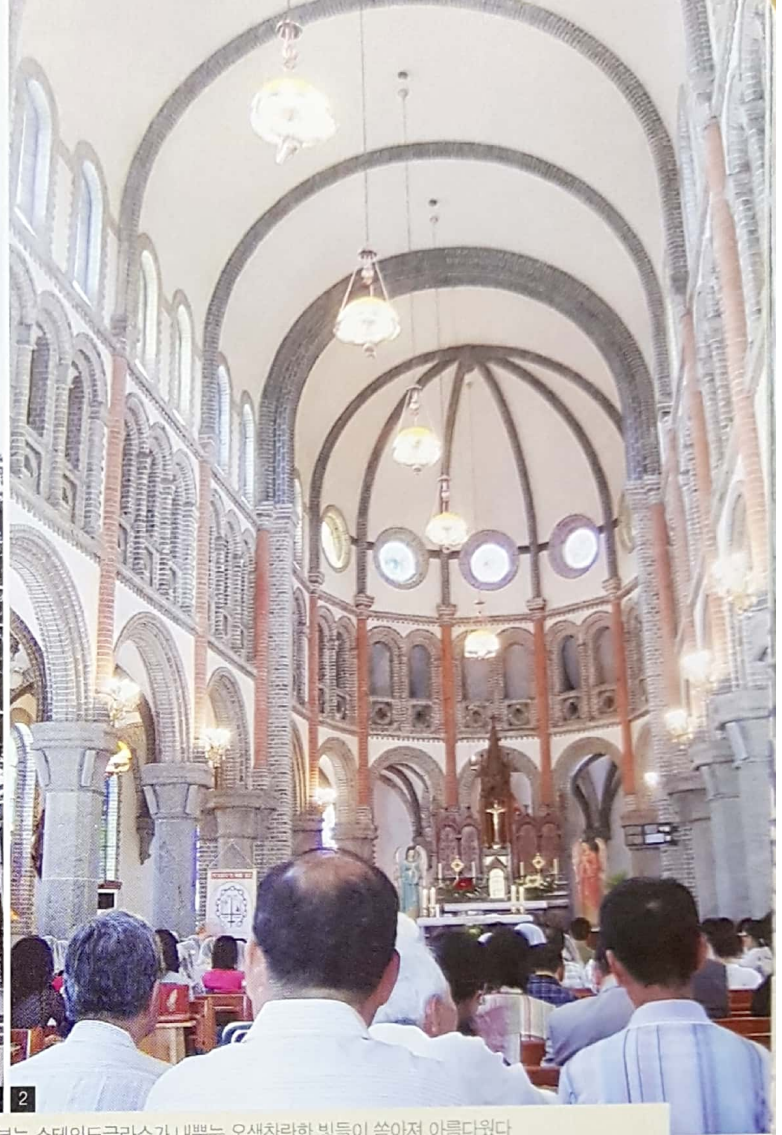
전주, 걷기 좋은 곳, 전주 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은 전통성당

이곳 역시 천주교 박해를 피해가지 못한 곳으로 1791년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권상연이 처형된 곳이다.

작년에 열심히 천주교 역사를 공부했는데 일 년도 안되어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렴풋이 이름만 기억난다. 전통성당은 1908년 착공 후 1931년에야 축성식을 해 무려 23년에 걸쳐 지어졌다고 한다. 성당 안의 3층 스테인드글라스가 내뿜는 빛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독특한 멋을 제대로 느끼려면 경기전에서 바라보는 전통성당이 압권이다. 흙담장 위 기와가 얹힌 너머로 고 덕성당이 솟아있는 풍경은 초기교회가 조선에서 겪게 되는 박해를 짐작하게 해준다.(<http://www.jeondong.or.kr>)

학인당, 고택에서의 하룻밤

땅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비 오는 고택에서의 하루. 이른 아침 창을 열면 고스란히 마당과 하늘이 들어오는 곳. 아, 우리집이면 참 좋겠다. 학인당은 출입문부터 다른 집들과 격을 달리했다. 나라에서 효자로 인정한 집으로 궁궐 형태와 비슷한 삼문이 먼저 맞이한다. 자세히 보면 다른 문들과 달리 특이하다. 효자로 이름난 집의 문 위에 표시하는 형태의 건축양식이라고 한다. 수원백씨 백낙중 선생의 집으로 전주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 백범 김구 선생이 묵었다고 해서 더 기분 좋았다고 할까. 한옥의 고즈넉함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한옥에서는 밤 늦게 수다 떨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옆방과 방음벽이 얇아 12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주는 게 예의. 다음 날, 직접 재배한 재료로 만든 깔끔한 아침밥을 싹 비웠다.



1 전동성당의 아름다움은 경기전에서 바라봐야 제대로다. 2 성당 내부는 스테인드글라스가 내뿜는 오색찬란한 빛들이 쏟아져 아름다웠다.
3 태어나서 처음 와본 전주한옥마을은 나지막하니 혼자 여행하기 딱 좋은,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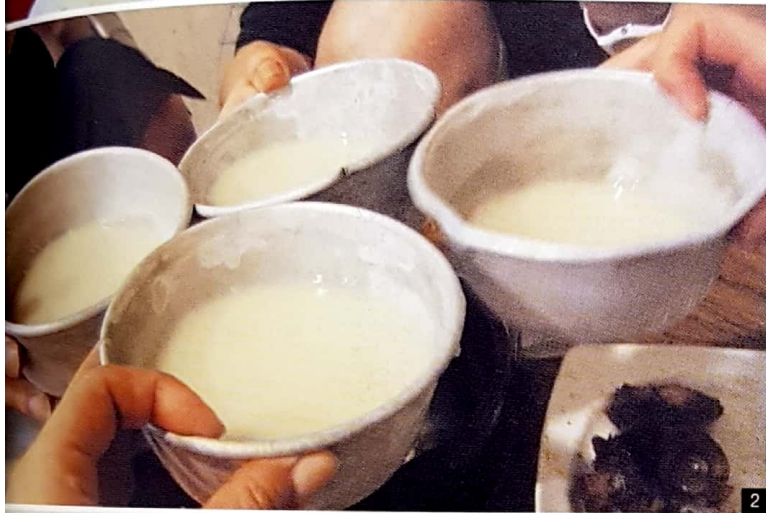




한옥마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고택 학인당.

전주, 하루를 접수하다

두 명의 날라리 신자와 두 명의 비신자가 함께 일요일 오전 10시 미사에 참석했다. 전날 저녁 무렵의 성당 안과 다음 날 사람들로 가득한 성당 안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가족, 이웃들이 미사에 모여 기도를 하고, 남북통일이 미사의 주제였다. 나는야 '아, 창문 너무 예쁘다'며 탄짓. 미사 후 경기전을 지나 유명하다는 '베테랑 칼국수집'으로 갔다.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로 가득했지만, 전주토박이들이 느끼는 향수의 맛을 알 리 없어 고만고만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먹어 왔다면 추억의 맛에 흥분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다. 식사 후 오목대로 향했다. 태조 이성계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지었다는 오목대는 크기가 다른 누각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많은 누각을 구경해봤지만 오목대는 궁궐양식에 맞춘 위상을 자랑했다. 어디서 이렇게 큰 나무를 구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답리 누각을 받치고 있는 나무는 크고 웅장했다. 이성계는 승리하고 돌아와 축하연을 열었다는데, 우리는 따가운 햇살을 피해 한낮의 더위를 식혔다. 전주 한옥마을이 고스란히 보이는 높은 지대로 조망과 누각에 누워 바라보는 하늘이 일품이었다.



1 확인당에서 먹은 아침상. 직접 재배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정갈하고 깔끔하다. 2 전주를 찾았다면 한 전주자마다 푸짐한 안주가 끝도 없이 차례지는 전주막걸리는 한 잔 마시고 가야 한다. 3 1박2일 전주여행 동안 먹은 곳을, 즐긴 곳들이 이만큼이다.

전주 가면 뭐 먹지?

경기전 후문에 있는 '더스토리'는 참한 가격에 맛있는 커피, 넓은 실내 인테리어로 자리가 쉽게 나진 않았지만 한옥마을 내에는 작고 예쁜 카페, 찻집이 많고, 가격도 저렴하다.

주말예약을 하지 않아 먹어보지 못한 '다문' 한식, 예수병원 방향에 있는 '화심순두부' 전주점, 콩빈대떡, 도토리묵 그리고 콩도너츠가 별미였다. 저녁엔 막걸리 거리 중에 유명한 '옛촌막걸리'가 분위기를 더했고, 전통소리문화공간 '한벽루'의 한정식도 깔끔했다.

한옥마을 내의 전시관은 대부분은 무료관람이 가능하였고, '교동아트' 전시관 2층은 1000원짜리 셀프차와 한적한 분위기가 무엇보다 좋았다. 골목길을 걷다 '미니스탑'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헤이즐넛이 더위를 식혀줬다. '혼불'의 작가 최명희문학관, 강암서예관이 근처에 있다.

가보진 않았지만 전주 방문 시 추천음식점으로 비빔밥은 '가족회관', '성미당', '고궁', 한정식은 '송정원'이 둘러볼 만한 곳.

전주 시내에서 택시를 타면 15분 이내로 무난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 길 헤맬 염려는 안 해도 된다.

^^*